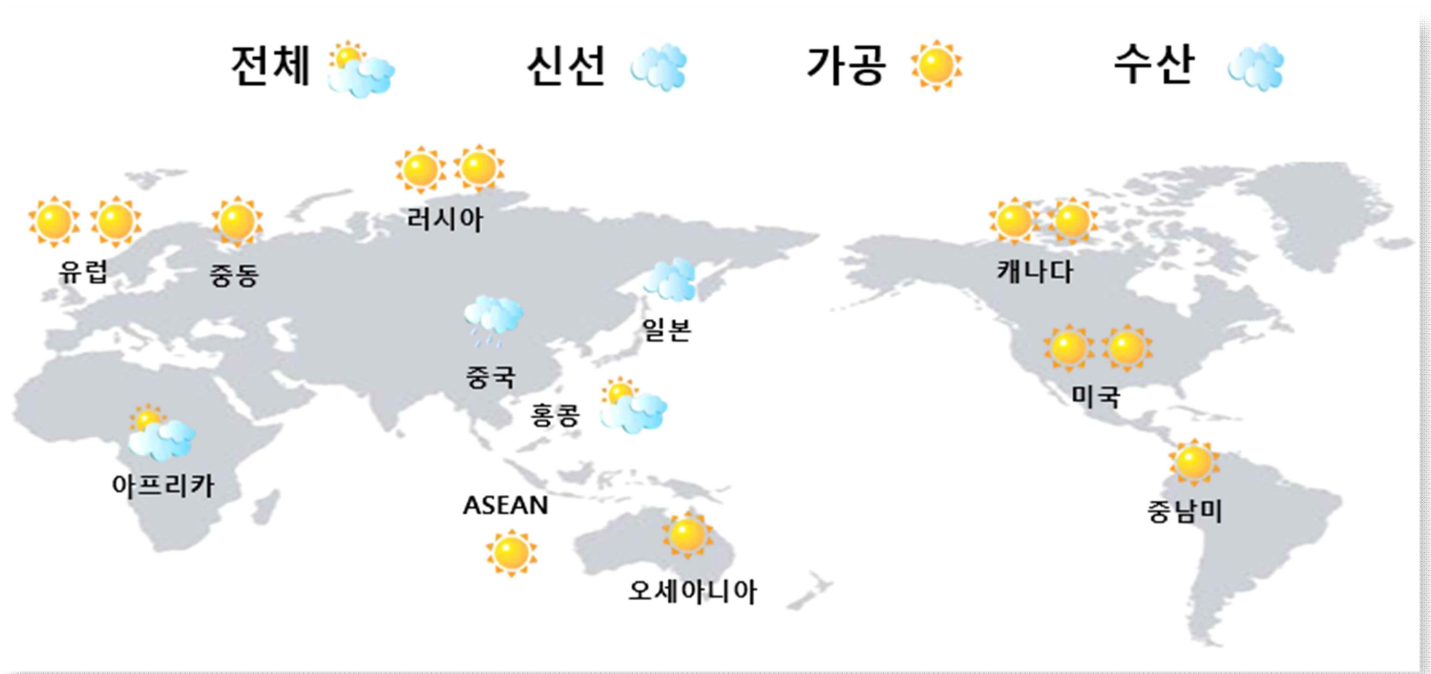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23

I	시에이(CA) 선박 기술, '참외 수출' 새로운 장 열어
II	이달의 신간 -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III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 수출길 오른다!
IV	한국산 파프리카, 하늘길 통해 필리핀으로 첫 상륙!



- '24년 6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2.2억불(6,21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 (신선, 7.0억불) 버섯류(18.7, 5.2%↑), 김치(83.8, 4.0%↑) 등 증가, 과실류(144.1, △7.6%), 채소류(147.0 △9.2%), 인삼류(118.6, △6.0%) 감소
 - (가공, 40.1억불) 면류(719.6, 27.6%↑), 음료(325.7, 9.6%↑), 과자류(354.0, 11.4%↑), 낙농품(82.5, 5.8%↑) 등 증가, 주류(165.9, △12.4%) 감소
 - (수산물, 15.2억불) 김(535.2, 32.0%↑), 참치(292.2, 7.4%↑) 증가, 굴(51.3, △13.0%), 고등어(22.9, △36.4%), 명태(16.9, △39.6%) 감소

* '24년 6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9.0% 증가한 3,347.8억 불

< '24년 6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3년(연누계)		'23년 6월(A)		'24년 6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915.3	12,010.8	2,432.3	5,941.6	2,548.3	6,218.7	4.8	4.7
□ 농림축산식품	4,151.2	9,022.3	2,056.8	4,422.6	2,202.9	4,703.7	7.1	6.4
○ 신 선	497.7	1,486.5	265.8	722.0	294.3	697.1	10.7	△3.4
○ 가 공	3,653.5	7,535.9	1,791.0	3,700.6	1,908.6	4,006.6	6.6	8.3
□ 수 산 물	764.0	2,988.4	375.5	1,519.0	345.3	1,515.1	△8.0	△0.3

- (국가별) 아세안(1,256.8백만불, 3.7%↑), 미국(983.9, 15.7↑), CIS·몽골(286.1, 23.5↑), EU·영국(455.7, 28.3↑) 증가, 일본(995.9, △4.9), 중국(965.2, △8.7) 감소

- (아세안) 주요품목 수출 호조 및 김 수출 증가(수산물수출1위) 등 전체 실적 증가
- (미국) 고물가 지속 등 직접 요리 트렌드 강세, 현지 유통매장 내 K-FOOD 소비 증가
- (CIS) 국가 경제 활성화에 한류 인기가 더해지며 현지 유통체인 입점 등 수출 증가
- (유럽) 한식당 및 일반 소비자 대상 수요 지속(장류, 김치, 김, 어묵) 등 수출 증가
- (일본) 엔저 지속 등 경기침체로 농수산물 전반 가격경쟁력 지속 약화 등 수출 감소
- (중국) 수출상위품목(라면, 음료 등)수출 호조이나, 수산물 식품 역기지 효과 등 수출 감소

< '24년 6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아세안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베트남	태국	인니		러시아		
'23.6월(A)	1,494.4	1,047.1	850.3	1,212.1	412.7	246.0	157.2	355.1	231.7	138.1
'24.6월(B)	1,409.0	995.9	983.9	1,256.8	409.8	262.3	160.7	455.7	286.1	171.5
증감률(B/A)	△5.7	△4.9	15.7	3.7	△0.7	6.6	2.3	28.3	23.5	24.2



농진청 이슈



시에이(CA) 선박 기술, '참외 수출' 새로운 장 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참외. 외국에서는 이색 과일로 인기가 높지만, 신선도 유지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아 제약이 따랐던 참외 장거리 선박 수출이 첫걸음을 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참외를 장거리까지 경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온도와 공기 조성을 조절하는 시에이(CA)* 선박 기술을 적용, 우리 참외를 싱가포르까지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 시에이(CA, Controlled Atmosphere):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대기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작물의 호흡을 억제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수송 컨테이너에 이 기술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해 왔음

시에이(CA) 선박 기술로 참외를 다른 농산물과 혼합 선적해 홍콩(7일 거리)에 수출한 적은 있지만, 비교적 장거리에 속하는 싱가포르에 참외 단독 수출을 시도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난 6월 말 참외 2.5톤을 실은 시에이(CA) 컨테이너 수송 조건을 온도 4도(°C), 산소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로 설정했다. 동시에 현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예비 냉장과 포장 기술을 적용했다.

유통상 문제로 평소보다 수송기간이 3~5일 지연(총 16일)되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있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참외 손실률은 1% 이하로 매우 낮았다. 기존 일반 선박 컨테이너로 수출할 때의 손실률 25~40%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시에이(CA) 선박 기술을 적용한 참외는 처음 수확했을 때와 비슷하게 껍질 색과 겉모양, 아삭함을 유지했고 곰팡이 부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로 통상 10일 이상 걸리던 싱가포르 선박 수출이 성공하면서 캐나다, 베트남, 태국까지 참외 수출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수송을 대체해 50% 정도*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싱가포르 물류비용: 항공수송과 비교, 20ft(피트) 컨테이너(48%), 40ft 컨테이너(24%) 수준(2024.7월 기준)

이달의 신간 -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출용 인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삼(수삼)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5.5톤, 111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이며, 홍콩, 일본 등 14개 나라로 수출됐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이 책은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방법 등을 수록해 국내 인삼 재배 농가가 대만,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할 인삼을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식물검역 이슈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 수출길 오른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6월 최종 타결되어 올해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하여 수삼의 미국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파프리카, 하늘길 통해 필리핀으로 첫 상륙!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완료한지 11개월 만에 첫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4년 필리핀과 파프리카 검역협상 타결 당시 선박 화물로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꾸준히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23년 8월부터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고, 7월 10일 완화된 요건에 따라 파프리카 360kg(56박스)를 필리핀 마닐라로 첫 수출 하였다.

◇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산 파프리카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